

SERVING MEALS THAT MAKE A DIFFERENCE

차이가 나는 맛을 만들어내는 식사봉사

ICEJ staff keeping Jerusalem kitchen 'Hineni' open

ICEJ 직원이 일하는 예루살렘 주방 '히네니' 개점



By: Anastasiya Gooding, 아나스타시아 구딩 기자

Posted on: 15 Jul 2020, 2020년 7월 15일 기고



Hineni, a community kitchen in the center of Jerusalem, offers hot daily meals for the elderly and poor, serving hundreds of needy recipients every day, both on-site and through home deliveries. (The name Hineni comes from the Hebrew word for “Here am I”).

예루살렘 중심부에 있는 공동주방 히네니는 노인과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매일 매일 따뜻한 음식을 제공하며, 매일 현장에서와 가정 배달을 통해 수백 명의 불우한 수혜자들을 돌봅니다. (히네니Henieni라는 이름은 “여기 있습니다” 라는 히브리어 단어에서 유래했습니다).

Normally, this social outreach restaurant has a small full-time staff of a couple managers and cooks, and they rely on foreign Christian volunteers to come in from abroad and assist with preparing and serving the meals. Many of their volunteers are Dutch Christians, who faithfully serve at different times of the year in Jerusalem.

일반적으로 이 사회 복지 식당에는 소수의 책임자와 요리사로 구성된 전임 직원이 있으며 해외 기독교인 자원 봉사자들이 그들 나라에서 와서 식사 준비와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자원 봉사자들 중 다수는 네덜란드 기독교인으로 일년 중 여러 다른 시간에 맞추어서 예루살렘에서 충실하게 봉사합니다.

But the Coronavirus lockdowns and travels bans have prevented some of the regular staff from getting to work, while the foreign Christian volunteers have been unable to reach Israel to serve their time at Hineni. Without the normal staff and these Christian helpers, the kitchen would have to close down, and hundreds would be without food. This is where the staff of the International Christian Embassy Jerusalem comes in!

그러나 코로나 바이러스 차단조치와 여행 금지로 인해 정규 직원 중 일부는 일을 할 수 없었으며, 외국 기독교 자원 봉사자들은 이스라엘에 도착하여 히네니에서 시간을 보내지 못했습니다. 정규직원과 이러한 그리스도인 조력자 없이는 부엌이 문을 닫고 수백 명이 음식을 먹지 못할 것입니다. 이곳은 국제 기독교 대사관 예루살렘의 직원들이 일하러 들어온 곳입니다!

Over recent months, the ICEJ staff have been rotating in to serve each day at Hineni and keep it open to feed the hungry and unfortunate, including a number of Holocaust survivors. Each day, at least three or four Embassy staffers are on-site, cutting vegetables, scooping up plates of food, and packing meals for home delivery. Even during the strictest lockdowns, the ICEJ staff were still considered essential workers and could come serve and package meals.

최근 몇 달 동안 ICEJ 직원은 히네니에서 매일 봉사하고 많은 홀로코스트 생존자를 포함하여 배고프고 불행한 사람들에게 음식을 공급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매일 3-4명 이상의 대사관 직원이 현장에서 채소를 자르고, 음식 접시를 퍼내고, 가정 배달을 위해 식사를 포장합니다. 가장 엄격한 폐쇄 조

치기간에도 ICEJ 직원은 여전히 필수 근로자로 간주되어 식사를 제공하고 포장
을 할 수 있었습니다.

Benjamin Philip, the founder and director of Hineni, has been thrilled and relieved by the help of the ICEJ.

“Truthfully, I must say that you have been sent by God. I cannot say it differently,” he recently stated. “At the time when Corona started, we would have had to close down because our own workers and regular volunteers were unable to help due to various reasons. But the ICEJ came every day, which allowed us to stay open and continue to provide Israelis in need with daily help even in remote areas.”

히네니의 창립자인 벤자민 필립(Benjamin Philip)은 ICEJ의 도움에 감동을 받고 있습니다.

“진실로, 나는 당신들이 하나님에 의해 보내졌다고 말해야겠어요. 나는 다른 할말이 없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코로나가 시작될 당시 우리 직원과 정규 자원 봉사자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도울 수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ICEJ는 매일 문을 열도록 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개점 상태를 유지하고 먼 지역에서도 매일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계속 도움을 줄 수 있었습니다.”

“Hineni works closely with the Jerusalem social welfare department to provide hot meals and daily necessities to those in need,” Benjamin added. “Without the help of the ICEJ, it would have been literally impossible to do.”

Ryan Tsuen, the ICEJ’s graphic designer, has been excited to serve the Lord here in Jerusalem in this different way.

베냐민은 “히네니는 예루살렘 사회 복지부와 긴밀히 협력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따뜻한 음식과 일용품을 제공합니다. ICEJ의 도움 없이는 말 그대로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ICEJ의 그래픽 디자이너 라이안 추엔(Ryan Tsuen)은 이런 방식으로 예루살렘에서 주님을 섬기게 되어 기쁘다고 했습니다.



“For myself, the opportunity to volunteer with Hineni was an immediate Yes!,” said Ryan. “Back in Canada, I volunteered with a small charity which also served meals to those in need. We saw the immediate impact of providing food to those living below the welfare margin. So, when the chance to do something like that here in Jerusalem came up, I did not hesitate.”

라이안은 “나 자신에게 히네니에서 함께 자원 봉사 할 수 있는 이 기회는 바로 긍정 자체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캐나다에서 나는 작은 자선 단체에서 자원 봉사를 했으며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도 식사 봉사를 제공했습니다. 우리는 복지 하한 수준 이하의 사람들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것이 즉각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이와 같은 일을 할 기회가 생겼을 때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I realize the need for a nutritious meal, and Hineni does not disappoint,” he added. “They provide take-away trays as well as a sit-down meals for their patrons. Seeing the different ones come in is very special, because we don’t know the details of their background, or their challenges, but we know we are called to love others as Christ loves us. And when given the opportunity to love through this act of service, what more can you ask for?”

“나는 영양가 있는 식사의 필요성을 알고 있으며 히네니는 실망시키지 않게 해 줍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들은 테이크-아웃 식판으로 손님들이 편하게

앉아서 먹을 수 있는 식사를 제공합니다. 우리는 그들의 숨어있는 세부 사항이나 어려움을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차이 나게 보이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라는 소명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봉사활동을 통해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데 무엇을 더 바라겠습니까?”

Irene Sands, housing manager for the ICEJ staff, is also grateful for this unique opportunity to serve the needy in Jerusalem.

“It has been special over the past few weeks to serve at Hineni,” said Irene. “Our work includes cutting vegetables and the ‘hugest’ sweet potatoes I have ever seen, packing boxed lunches for delivery, serving meals and helping to clean the venue afterwards. It has been refreshing and enlightening, working with the staff there and it is wonderful to see Jews, Christians and even their Arab Muslim cooks working together in unity.”

ICEJ 직원의 주택 관리자인 아이린 샌드즈(Irene Sands)는 또한 예루살렘에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봉사할 수 있는 이 특별한 기회에 감사하다고 말합니다. 아이린은 지난 몇 주 동안 히네니에서 봉사하는 것이 특별했습니다. “우리의 작업에는 야채를 자르고 배달을 위해 도시락을 포장하고 식사를 제공하며 그 후 작업장소를 청소하는 일이 포함됩니다. 그곳의 직원들과 함께 일하면서 신선함과 깨달음을 얻어 가고 있습니다. 유대인, 기독교인, 심지어 아랍 무슬림 요리사들도 연합하여 함께 일하는 것을 보는 것이 좋습니다.”



“It is always a blessing to serve those less fortunate than ourselves, and it warms my heart to see a smile appear from offering them more soup or pouring their water for them. As Mother Theresa

said: 'It's the small acts of kindness that echo into eternity'. To treat them with dignity and to show love, is so important."

“언제나 자신보다 불행한 사람들에게 봉사하는 것은 축복이며, 좀더 많은 수프를 떠드리거나 물을 따르는 일 속에서 미소가 나타나는 것을 보고 마음이 따뜻해 집니다. 테레사 수녀가 말한 것처럼: “영원한 분위기를 풍기는 작은 친절의 행동입니다.” 그들을 품위 있게 대하고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Irene also noted: “I have enjoyed working with other ICEJ staff members whom I do not usually work with that much, learning more about their lives and discussing their latest activities, all while dishing up food! It can be more physically trying than office work, but great teamwork helps.”

She added: “I want to say a word of thanks to the ICEJ's supporters worldwide for enabling our staff to have this special opportunity at this unique time. I am most grateful.”

아이린은 또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무실 업무보다 더 육체적으로 노력할 수 있고 훌륭한 팀워크에도 도움을 줍니다.”

그녀는 다음과 같이 덧붙였습니다. “저는 다른 나라에서 온 직원들이 이 특별한 기회를 가질 수 있게 해준 ICEJ의 지지자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Indeed, it is such a blessing for the ICEJ to be the hands and feet of our Christian supporters here in Israel. Thanks to you, we are able to answer the Lord: “Here am I”.

Please consider a generous gift to the ongoing social aid work of the ICEJ during this time of the Corona crisis.

실제로 ICEJ가 이스라엘의 기독교 지지자들이 손과 발이 되는 것은 정말 큰 축복입니다. 덕분에 우리는 주님께 고백할 수 있습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 코로나 위기 기간 동안 ICEJ의 지속적인 사회 봉사 활동에 대한 관대한 선물을 보내 주십시오.

Donate today at: icej.org/crisis

오늘의 기부는: icej.org/crisis 로

Share this:

[이 소식을 나누어 주십시오.](#)

한국 국제기독교예루살렘대사관

Korea International Christian Embassy Jerusalem

Rm703, Acetechnotower, 15, Seonyu-ro 33-gil, Yeongdeungpo-gu, Seoul Korea 07271

F: +82-2-2636-4753

M: +82-10-2079-3073

E: tcj.jesus@gmail.com

H: www.tcj.kr

Facebook: ICEJ KOREA

YouTube: ICEJ KOREA

